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9

2012 <http://www.ucac.or.kr>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진짜 재즈 빅 밴드가 온다!

밍거스 빅 밴드

MINGUS BIG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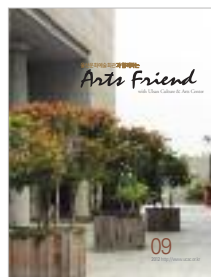


일시 : 2012. 9. 8 토 7 PM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권 : 전석 50,000원

문의 : 052. 275. 9623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자료제공 : LG아트홀



COVER STORY |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울산의 문화·예술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도심 속의 휴식처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호에는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과 조형물, 분수 등 회관의 포토 포인트를 소개한다.

Arts Friend 2012.9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04 ■ 시립예술단 공연

[교향악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홀스트 - 행성'

[교향악단]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합창단] 신예지휘자 초청 '가을음악회'

[청소년교향악단] '가을의 칸타빌레'

[청소년합창단] '꿈을 노래해'

10 ■ 기획공연

'밍거스 빅밴드'

'박원후 성악 앙상블'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콘서트'

'클래식 그리고 재즈'

15 ■ 예술을 말하다

브레겐츠 페스티벌

함부르크

오페라의 역사 IV

펠릭스 발로통의 「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 Op. 32

28 ■ UCAC는 지금

울산시립교향악단 '미국/캐나다 투어 공연(포틀랜드Ⅱ · 밴쿠버 편)'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포토 포인트

31 ■ 9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9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9월호 | 통권 제157호

-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안종철
- 기획·편집 / 김현욱,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 디자인·제작 / 동방디앤피 T. 052)266-8500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2012 명작시리즈 V

〈홀스트〉 행성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2012. 9. 14(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 연 첼로 백나영
출 연 울산대콘서트라이어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영국의 대표적 근대음악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

이번 9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완벽한 지휘법으로 울산시민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명작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로 홀스트의 '행성' (작품번호 32)을 기획하였다.

구스타프 홀스트(Gustavus Theodore von Holst, 1874~1934, 영국)는 본 윌리엄스와 더불어 영국의 근대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바그너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위시한 독일 낭만주의의 기반 위에 그리그의 서정주의, 라벨의 세밀한 리듬과 정교한 관현악법, 그리고 영국 민요의 곡조 등이 결합된 음악적 성향을 보인다. 홀스트의 '행성'은 홀스트의 풍부한 상상력과 탁월한 관현악 기법이 십분 발휘된 회심의 역작이다. 본인의 작품에 더하여 쇤베르크, 립스키-코르사코프, 글라주노프, 스트라빈스키 등의 영향을 반영한 이 작품은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주었고, 이후 할리우드 여러 영화음악을 비롯한 '우주'를 다룬 음악작품들의 원형이 되기도 했다. 각 7개의 곡들은 태양계의 행성의 이름이 붙어 있다.

'화성'은 영화 '스타워즈'에서 사용되었고, '목성'은 MBC 라디오 방송 시그널 음악,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배경음악 등으로 인기를 누리는 곡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여러 영화음악, 광고 등에 널리 사용되어 친숙한 음악이다. 4관 편성과 첼레스타, 2대의 하프, 합창이 더해진 대규모의 편성으로 웅장함과 박진감이 더하며, 대규모로는 좀처럼 연주되기 어려운 곡이다.

드보르자크 |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번

홀스트 | '행성' 작품32

- I.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Mars, the Bringer of War)
- II. 금성, 평화를 가져오는 자(Venus, the Bringer of Peace)
- III. 수성, 날개달린 사신(Mercury, the Winged Messenger)
- IV. 목성, 쾌락을 가져오는 자(Jupiter, the Bringer of Jollity)
- V. 토성, 옛날을 가져오는 자(Saturn, the Bringer of Old Age)
- VI. 천왕성, 마술사(Uranus, the Magician)
- VII. 해왕성, 신비로운 자(Neptune, the Mystic)



감미로운 음색과 완벽한 테크닉의 소유자

첼리스트 '백나영'

이번 정기연주회의 협연자는 첼리스트 백나영이다. 현재, 미국 뉴저지 심포니 첼로 단원으로 재직 중인 백나영은 세종솔로이스츠의 단원이기도 하다. 백나영은 10세에 첼로를 처음 시작해 이듬해 신화 음악 콩쿨, 이화 경향 음악 콩쿨에서 1등을 차지하고 서울시립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한국 데뷔를 하였다. 그 이후로 조선일보, 세계일보 콩쿨에서 대상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1회 청소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Virtuoso Prize를 수상하며 첼리스트로의 재능을 선보였다. 16세에는 커티스 음악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하였으며, 예일 대학교에서도 전액 장학생으로 석사를, 줄리어드 음대에서는 졸업 시 가장 촉망 받는 연주자에게 주어지는 Aldo Parisot Prize를 수상하였다. 그 후 뉴욕 주립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진학하여 26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백나영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미국 데뷔 무대를 장식하였다. 그 후 Hudson Valley Philharmonic, DuPage Symphony Orchestra, 서울 시립 교향악단, 수원 시립 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원주 시립 교향악단, 바로크 합주단 등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 경력을 쌓았다. 독일의 라인가우 국제 음악제에서 바로크 합주단과 하이든 협주곡 D장조의 협연은 독일 신문 Frankfurter에서 "감미로운 음색과 완벽한 테크닉, 아름다운 프레이징이 오케스트라와 조화를 이룬 연주"라는 호평을 받았다. 카네기홀, 케네디 센터, 파리의 Salle Gaveau, 런던 Cadong Hall 등에서 연주를 펼치기도 하고, 한국인 첼리스트 최초로 말보로 국제 음악제에 3년 동안 초대되어 미치코 우치다, 리차드 구드, 이그나트 솔제니친, 파르네리 콰르텟 등 저명한 연주자들과 다수의 연주를 한 경험이 있다.

그녀는 현재 세종솔로이스츠, 뉴저지 심포니, ECCO, Metropolis Ensemble의 멤버이며, 뉴저지 주립 KEAN University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첼리스트 백나영이 협연하는 드보르자크의 첼로협주곡을 통해 가을의 문턱에서 진한 가을의 향기와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란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09.14

Young Artist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2012. 9. 25(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김종규(부지휘자)
협 연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영 아티스트
입장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오는 9월 25일 화요일 저녁 8시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이 펼쳐진다. 이번 연주회는 울산 출신의 음악전공자들에게 울산 시향과 협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출신의 우수한 연주가 발굴과 전문 연주가로서의 활동을 준비하는 젊은 음악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공연에서 시향과 함께 연주할 협연자들은 울산에 연고가 있는 음악대학 재학 이상, 만 30세 미만의 영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지난 7월 공개모집을 시작하여 8월에 오디션을 통해 선정하였다. 울산시향과의 협연은 울산출신의 젊은 음악가들에게 특별한 기회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울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음악계에 버팀목이 될 신인 음악가들이 협연하는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09.25



울 산 시 립 합 창 단
2012. 9. 18(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 휘 최상윤, 신승용
입 장 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신예지휘자 초청

가을음악회



최상윤



신승용



울산시립합창단은 오는 9월 18일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신예지휘자 초청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신예지휘자들 중 지휘를 전공하고 대학 강의와 다양한 합창단 지휘경력을 쌓고 있는 최상윤, 신승용 지휘자를 한국 합창지휘자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연주회를 마련하였다.

최상윤 지휘자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작곡)을 수석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합창지휘 석사를 북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합창지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무아트홀

중구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고 있으며, 신승용 지휘자는 경희대학교(성악)와 서울신학대학교(합창지휘)를 졸업하고 루이빌 주립대학교에서 합창지휘 석사를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합창지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의 문턱을 지나는 9월, 미래 한국 합창계를 이끌어 갈 두 신예지휘자의 열정적인 무대를 통해 또 다른 합창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프로그램

Stage 1. [지휘 : 최상윤]

- Richte mich Gott – F. Mendelssohn
- Benedictus Dominus – Carl Nielsen
- Libera Me – Bardos Lajos

Stage 2(여성합창). [지휘 : 신승용]

- Lauliku lapsepoli(가수의 어린시절) – Veljo Tormis
- 도라지 꽃 – 박지훈
- Will the Circle Be Unbroken(영원한 圓과 같이)
– Arr. by David Moore

Stage 3(남성합창). [지휘 : 최상윤]

- What Shall We Do with the Drunken Sailor – Alice Parker
- The Road Home – Tune from "Prospect"
- I Bought Me a Cat – Aaron Copland
- Vive L'Amour – Arr. by Robert Shaw

Stage 4. [지휘 : 신승용]

- O Magnum Mysterium – Frank La Rocca
- My Old Kentucky Home(켄터키 옛집)
– Arr. by Donald Moore
- MLK – Arr. by Bob Chilcott
- Ride The Chariot(마차를 타고) – Arr. by Hoses Hogan

가을의 칸타빌레

Cantabile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2. 9. 11(화) 19:3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김종규
협연 정은지(소프라노)
특별출연 울산타악기앙상블
입장료 전석 1천원

청소년 관객들과 음악으로써 교감하고 즐길 수 있는 연주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오는 9월 11일(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9월의 기획 연주회 “가을의 칸타빌레”를 개최한다.

칸타빌레(cantabile)는 음악용어에서 “노래하듯이”라는 뜻으로, 밝고 맑은 표정을 담아 선율에 노래하듯이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말로써 이번 연주회는 9월의 가을을 맞이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교향악(交響樂)으로 노래하고자 한다.

서곡으로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으로 현악기 구성만으로 된 제3번의 제1악장으로 막을 연다. 이 곡은 바로크 시대의 소나타다운 현악기만으로도 힘차고 숭고한 맛이 일품인 작품

이다. 이어, 시립교향악단 타악기 주자 이상욱 단원이 이끄는 울산타악기앙상블팀이 정통 타악기 앙상블 연주와 난타 종류의 타악기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규칙적이면서도 율동적인 리드미컬한 특성을 지닌 타악기만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시립청소년합창단 단원이며 고교 2년생인 소프라노 정은지 단원이 전문 성악가 못지않은 주옥같은 목소리로 이흥렬 곡 “꽃구름 속에”와 1곡을 노래하고, 오케스트라만의 연주로서는 교과서적으로 유명한 작품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와 앤더슨의 고장난 시계 그리고 유머러스한 요한 스트라우스의 틱탁 폴카를 순서대로 연주하며 끝으로 교향곡으로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1번, 제2번의 3악장인 메뉴엣과 스케르초를 경쾌하고 흥겨운 리듬과 함께 마무리를 장식한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매 공연에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주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청소년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 “가을의 칸타빌레”와 함께하시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란다.

글 | 김수형(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무장)





울산시립 청소년 합창단
2012. 9. 4(화) 19:3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한성웅
반주 김나리
특별출연 윤풍원(바리톤), 살로니쿠스
입장료 전석 1천원

꿈을 노래해

개학과 더불어 2학기를 시작하는 9월초의 가을밤,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이 오는 9월 4일(화)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고 더불어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청소년이 되어라는 취지로 “꿈을 노래해”란 제목의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합창(비상, 희망, 꿈을 노래해)과 성악가 바리톤 윤풍원의 특별출연 및 시립교향악단의 실내악 연주팀인 살로니쿠스가 출연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선사할 것이다. 먼저, 합창곡으로는 1부/비상(훨훨 날아오,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소녀여 한숨은 그만) 2부/희망(그가 일으켜 주신다, 아-에-이-오-우, 거위의 꿈) 3부/꿈을 노래해(나그네, 피가로의 결혼 서곡, 엘리제를 위하여)로 가사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홀로 걷는 험난한 시련의 길 속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깨끗함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출연으로 함께하는 바리톤 윤풍원은 프랑스 마르세이유 국립음악원 졸업과 이태리 Giuseppe Nicolini 국립음악원을 수료하고 이태리의 유명 콩쿠르(Alice bel Colle 입상, Terre dei Fieschi 특별상, Brescia 입상)를 두루 석권한 성악가로 목직한 중저음을 자랑하는 바리톤의 음성이 청소년합창단의 여성합창과는 또다른 매력으로 다가설 것이다. 이밖에도 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연주팀인 살로니쿠스가 출연해 고전시대 궁정에서 많이 성행했던 피아노 4중주의 연주형태 위에 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한만욱의 트럼펫 솔로가 가세된 독특한 형태와 구성으로 청소년 세대에 어울리는 음악적 스타일의 연주를 선사한다. 청소년합창단원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그 가사의 내용으로 함께 하시면서 꿈을 잃지 않는 미래 지향적 사고의 청소년이 되시기를 기대해 본다.

글 | 김수형(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무장)

09.04



Jazz Concert Series 3.

밍거스 빅밴드

일 시 | 2012. 9. 8(토) 19: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만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매주 월요일 밤, 뉴욕의 재즈 클럽 '재즈 스탠다드(Jazz Standard)'에는 어김없이 긴 줄이 늘어선다. 어두운 조명에 비좁은 테이블. 하지만 열 네 명의 뮤지션이 등장하여 강렬한 하드 비밥 사운드를 연주하기 시작하면, 관객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발을 구르기 시작한다. 이들이 바로 전설적인 찰스 밍거스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한 '밍거스 빅 밴드'다.

혁신적인 연주와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성으로 기억되는 찰스 밍거스(Charles Mingus, 1922~1979)는 50년대 중반부터 빅 밴드를 이끌며 스윙에 한정되지 않는 실험적인 재즈 오케스트라를 확립한 예술 감독이기도 했다. 밍거스 빅 밴드는 그가 추구했던 진보적인 밴드 음악을 발판으로 연주자 개개인의 해석을 담은 동시대의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최정상의 연주자 14명이 선사하는 자유롭고 뜨거운 하모니!

밍거스 빅 밴드는 고정된 멤버 구성없이, 총 50여 명의 뮤지션 중 공연마다 다른 14명의 연주자(트럼펫 3명, 트럼본 3명, 색소폰 5명, 피아노, 베이스, 드럼 각 1명)가 공연을 펼치며 음악적인 신선함과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스티브 슬레이글(Steve Slagle), 랜디 브레커(Randy Brecker), 라이언 카이저(Ryan Kisor), 빈센트 헤링(Vincent Herring) 등 수많은 명연주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는 재즈계의 산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발표한 10장의 앨범 중 무려 6장이 그래미상에 노미네이션 되었으며, 최근 음반 <Live at Jazz Standard>으로 2011년 그래미상 'Best Large Jazz Ensemble Album'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유로운 선율, 저 밑바닥에서 끓어 올린 듯한 거친 울림!

나이가 몇이던, 직업이 무엇이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음악을, 자유를, 재즈를 즐길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베이시스트 찰스 밍거스
그의 불같은 혼을 계승한 밍거스 빅 밴드가 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빅 밴드!" -Time Out New York, 미국
"놀라운 에너지와 음악의 깊이를 갖춘 최고의 재즈 오케스트라!"
- The Washington Post

2012 Encore Classic Concert

박원후 성악 앙상블

일 시 | 2012. 9. 13(목) 19:3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2011년 모닝콘서트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객석에서 무대까지 가득 메운 박수 소리로 성황
리에 공연을 마친 "박원후의 성악앙상블"
그 날의 환희와 황홀한 연주를 오는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저녁공연으로
다시 만난다.



▲ 박원후(해설/피아니스트)



▲ 오미선(소프라노)



▲ 한예진(소프라노)

진지한 클래식이 즐거운 클래식으로 거듭나는 시간!

어느 장르에도 구속되지 않아, 관객들과 보다 가깝고 듣기 쉽고 재미있는
환희와 황홀한 연주가 함께하는 신개념의 즐거운 클래식 공연!

2012 Encore Classic Concert "박원후의 성악앙상블"은 감미로운 음악
으로 아름다운 화합의 무대를 시민 여러분들께 선사할 것이다.

이번 공연의 해설을 맡은 박원후씨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대학원(피아
노 전공), 미국 맨해튼 음악대학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국립오페라
단 상임 음악코치 및 예술의 전당 음악코치를 역임하였으며, 지휘자 정명
훈, 임현정, 구자범, 베니니 등과 오페라 공연을 함께 해온 실력파 코레페
티토르(오페라 반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연주활동
을 펼치고 있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피아니스트 박원후의 해설과 함께 국내 유명 성악가인 소프라노 오미선, 한
예진, 테너 류정필, 바리톤 오승용의 아름다운 가곡과 아리아의 세계로 여
러분을 초대한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 류정필(테너)



▲ 오승용(바리톤)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스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 제작 공연으로 이번 2012년에 시즌5를 맞이하게 되었다. 3년 간 진행된 스위트콘서트에는 뮤지컬배우 백재현, 강호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 등 이미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다녀갔다. 2012년 스위트콘서트스는 최정원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엘레강스한 분위기의 최정원과 톡톡 튀는 진행으로 울산에서도 이제 인기 유명인이 되어버린 김호영을 올 한해에 3회씩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Sweet Concert Season 5.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콘서트

일 시 | 2012. 9. 6(목) 20: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출 연 | 최정원, 이영미, 뮤즈



유명 뮤지컬 배우를 공연캐릭터가 아닌 실제로 만나다!!!

공연 안에서 극중 캐릭터로만 만날 수 있는 뮤지컬배우, 하지만 스위트콘서트에서는 마치 옆집 오빠나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배우와 만나볼 수 있다. 스위트콘서트는 제목 그대로 관객에게 편안하고 달콤한 추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공연이다.

유명 뮤지컬 배우를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

“영화음악은 옛 여인의 향수이다”라고 말했던 세계적인 영화광 장뤽 고다르... 스위트콘서트에서 유명 뮤지컬 배우가 뮤지컬 속의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면 그 뮤지컬을 봤을 때의 감흥을 또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공연의 추억을 스위트콘서트로 정리하자. 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들! (좌충우돌 실수담, 배우가 되기까지...) 배우들이 들려주는 무대 뒷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 수동적인 관람공연이 아닌 무대와 객석이 동화되는 자연스러운 만남!!

글 | 박용운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Drum 한정훈



예술감독/편곡 박철홍

Morning Concert Season 5.

클래식 그리고 재즈

일 시 | 2012. 9. 27(목) 11: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보컬 Joona



Bass 배정호

9월 27일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클래식 그리고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하고, 아델라오페라단이 제작한 본 공연은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일곱 번째 모닝콘서트로 서늘한 가을날에 잘 어울리는 클래식과 재즈를 결합하여 울산 시민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가을을 선물하고자 마련되었다.

'클래식과 재즈' 어려울 것 같은 두 장르의 장점을 모아 쉬우면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멜로디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된다. 본 공연을 진행할 재즈밴드 '드루지야'는 러시아어로 '친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재즈를 비롯한 음악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베테랑 친구들이 모여 만든 그룹이다. '드루지야'는 예술감독 박철홍, 보컬 Joona, 드럼 한정훈, 콘트라베이스 배정호, 키보드 정윤지로 구성되어있다.

'드루지야'는 '클래식 그리고 재즈'에서 드라마 모래시계의 OST였던 러시아 가요 '백학'을 비롯해 'Fly me to the moon', 'Misty',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영화 '미션'의 주제곡 'Nella fantasia',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My way', '거위의 꿈'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가을을 닮은 보컬 Joona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재즈는 유난히 더웠던 올 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을 맞는 모두에게 어느새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감미로운 신호탄이 될 것이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Piano 정윤지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브레겐츠 페스티벌

함부르크

오페라의 역사 IV

펠릭스 발로통의 〈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 Op. 32

Part.2 UCAC는 지금

미국/캐나다 투어 공연(포틀랜드 II · 벤쿠버 편)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포토 포인트

Part.3 9월의 공연 · 전시

공연 · 전시 가이드

9월의 공연 · 전시





호수 위에 펼쳐지는 오페라의 혁명

브레겐츠 페스티벌

B r e g e n z F e s t i v a l



브레겐츠(Bregenz)

오스트리아에 속한 인구 3만 명 안팎의 작은 마을.

국내해 물론 유럽 내에서도 브레겐츠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많지만, 해마다 여름 이곳에는 도시 인구보다 많은 인파가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연 관계자들도 이 작은 마을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바로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페라 공연' 때문이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들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혀를 내두를 환상적인 무대연출.

자! 브레겐츠 페스티벌(Bregenz Festival)에 함께 가볼까요?

특별히 특별한 브레겐츠 페스티벌

유럽의 그 수많은 음악축제 가운데 이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이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호숫가'가 아닌 '호수 위에' 마련되는 무대의 웅장함 때문입니다. 무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올해 무대에는 사람의 상반신이 설치됐는데요. 상반신 길이가 24m, 머리 무게만 60톤에 달합니다.

동네 축제가 아닌 것이죠.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지난 1945년 시작됐는데요. 지금과 같은 현대식 시설을 갖춘 것은 1980년 무렵입니다. 이후 해마다 여름이면 인구 3만 명의 도시에 날마다 7천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무대 세트 때문에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는 2년 동안 같은 작품을 공연합니다.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세니에(André Chénier)

올해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탈리아 작곡가 움베르토 조르다노(Umberto Giordano)의 <안드레아 세니에(André Chénier)>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지난 1896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혁명 당시 활동한 시인 안드레아 세니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 세니에는 물론 백작부인의 딸 막달레나, 귀족계급에 맞서 싸우는 하인 제라드가 만드는 삼각관계도 프랑스 혁명과 함께 작품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앞서도 말했듯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오페라 자체는 물론 그 웅장한 무대연출이 큰 볼거리인데요. 이번에 보덴호는 거대한 목욕통으로 변신했습니다. 무대감독이 프랑스 혁명기 화가인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마라의 죽음>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림 속의 마라는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목욕 중에 욕조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 기존에 있던 그림을 모태로 무대를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무대 위에 설치된 상반신은 공연 중 조명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는가 하면, 목이 뒤로 꺾이면서 머리 안의 또 다른 무대가 보일 때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또 호수를 적극 활용해 배우들은 극적인 장면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보덴호에 몸을 던집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프랑스 귀족들의 화려한 의상을 보는 것도 큰 재미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오페라를 볼 때면 아쉬움도 큼니다. 저는 3년 전에도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봤는데요. 문제는 바로 '언어'입니다. 공연은 이탈리아어로 진행되고, 자막은 독어가 제공되는 데다, 고전작품이지만 각색되는 경우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년 전에 겪었던 뼈아픈 안타까움이 생각나 이번에는 공연 전에 홈페이지에 있는 시놉시스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압도적인 무대 연출과 빠른 전개, 격정적인 음악 덕분에 2시간 동안 공연에 푹 빠져들었지만, 내용 이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더군요. 이탈리아어를 배워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브레겐츠 페스티벌 가기 위한 A to Z

브레겐츠는 오스트리아 국경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보덴호(Bodensee)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독일이 자리해 있는데요. 덕분에 브레겐츠에 가면 휴대전화 로밍이 이들 3개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인들도 잘 모르는 브레겐츠에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브레겐츠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입니다. 이곳에서 브레겐츠까지는 기차나 버스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거나, 뮌헨이나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기차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저 역시 이번에는 취리히에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잘츠부르크나 인스부르크를 거쳐 기차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티켓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공연은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 한창 휴가철이라 여행 일정이 정해졌다면 티켓을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현재 가난한 유학생 입장이라, 가장 싼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자리에서도 무대의 변화무쌍함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티켓은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www.bregenz-erfestspiele.com>)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데요.



티켓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잘 적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티켓을 받지 못해 페스티벌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짧은 영어로 어렵게 설명한 뒤 해결책을 들으려는 찰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예상을 저버리지 않고 전혀 다른 분이 받더군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참,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전 조율을 거쳐 1회에 한해 현장에서 재발급 해줍니다.

브레겐츠 예찬

지난 7월 19일 시작된 2012년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8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밤 9시를 앞두고 페스티벌 하우스 주변은 사람들로 또 다른 호수를 이룹니다. 인근 노천카페에서 가볍게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담요 등을 챙겨 공연장에 입장하는 사람들. 객석에 앉아 있노라면 독일 린다우 쪽에서 유람선을 타고 단체로 입장하는 관광객들도 보이는데요. 호수 무대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 국적과 남녀노소를 불문한 수많은 관객들. 그야말로 진풍경입니다. 밤 9시15분, 어스름과 함께 시작된 오페라가 절정에 달할 때쯤에는 호숫가를 제외한 일대가 짙은 어둠에 휩싸이는데요. 그럴 때면 유체이탈을 하는 사람처럼 객석에 앉아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알프스 자락에 숨어 있는 작은 마을, 그 호수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오페라, 오밤중에 그 공연을 보고 있는 까만 머리의 조그마한 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브레겐츠는 페스티벌의 성공에 힘입어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클래식콘서트와 무용, 각종 전시회 등을 만날 수 있고, 유람선을 타고 인근 스위스나 독일의 작은 마을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트래킹이나 하이킹, 호숫가에 자리한 노천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번에 관광지를 벗어나 실제 브레겐츠 사람들이 사는 타운으로 찾아가봤는데요. 소박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모습에 반해 언젠가 한 번 브레겐츠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까지 품었습니다.

클 | 윤하정

KBS 앵커, 조흥은행 아나운서, TBS 방송기자 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주)좋은콘서트·삼성전자 웹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 중이다.



함부르크

Hamburg

글 |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사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1945년 4월 14일 공습을 마지막으로 독일 함부르크 시내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5월 7일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함부르크에는 영국군이 진주하였고 방송국도 군정관할 하에 들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선전에 앞장섰던 방송국 소속 교향악단도 해체되었다. 당시 함부르크에 있으면서 북서독일 방송국의 음악담당으로 있었던 영국 육군 대장 잭 보르노프는 1930년 창단한 영국 BBC 교향악단을 머리에 떠올리며 1935~1942년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지휘자를 지낸 한스 슈미트-이세르슈테트에게 새로운 방송 교향악단 창단을 제안했다. 북독일방송(NDR) 교향악단은 그렇게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11월 1일 무지크할레에

서 창단 공연을 했다. 함부르크 시가지가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무지크할레는 다행히 멀쩡했다. 1954년 쾰른에 서부독일 방송국이 생기면서 함부르크 방송국도 북독일 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은 브루크너 해석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지휘자 귄터 반트가 1982년부터 20년간 사령탑을 맡으면서 일약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했다.

라이스할레(2023석)는 함부르크에서 벌어지는 음악회를 소화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객석수도 적어서 표 값이 비싼 편이다. 2001년 10월 건축가 알렉산더 게라르트가 함부르크 시의



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함부르크 엘베 강변의 옛 항만에 있는 카이스파이커(Kaispeicher) 위에 콘서트홀을 짓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1875년 함부르크 항만에 네오 고딕 양식으로 들어선 최초의 창고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건물 일부가 파괴되었고 1963년에는 폭발 사고로 전소됐다. 1966년 원래 설계대로 같은 자리에 건물을 복원했고 1990년대까지 코코아, 차, 담배 창고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컨테이너 물류가 늘어나면서 창고가 텅 비어 자동차 57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당시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류가 늘어나면서 함부르크 하펜시티(HafenCity)의 넓은 땅과 창고가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다. 엘베 강변은 강폭이 좁아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함부르크는 로테르담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수심이 더 깊은 바다 쪽에 새로운 항만 시설이 생기면서 하펜시티는 업무, 주거, 판매, 문화시설과 학교, 공원이 들어선 수변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997년 함부르크 주정부가 100%의 지분을 갖는 개발회사를 설립하였다. 2000년에는 국제공모를 통해 네덜란드의 키스 크리스타안센의 안이 마스터플랜이 당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1개 지구로 구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잔토어카이 지구를 시작으로 2020년이면 모두 완공될 계획이다. 이곳은 건축물 높이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통 6~8층의 규모로 건축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랜드마크인 엘베 필하모니가 105m다. 함부르크 시내에 있는 교회당 다섯 개를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함부르크 시의회는 2002년말 하펜 시티의 문화센터 건립에 5000만 유로의 예산을 승인했다. 물론 기존 건물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건축비도 점점 늘어났다. 기존 건물의 지하에 1700개의 강화 콘크리트 파일을 박았다. 2010년 개관 예정이었으나 내년초로 늦춰졌다. 엘베 필하모니가 개관하면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이 상주 교향악단으로 자리잡는다. 라이즈할레에는 제프리 테이트가 이끄는 함부르크 심포니가 상주할 예정이다. 함부르크 필하모닉은 엘베 필하모니와 라이즈할레를 오가면서 연주할 계획이다.

원래 건물을 리모델링한 아랫부분은 벽돌, 새로 지은 윗부분은 통유리로 되어 있다. 지붕은 크리스탈 천막 형태다. 건물 외벽을 유리로 마감해 밤에는 항구를 등대처럼 환하게 비추주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못지않은 함부르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엘베 필하모니는 주거와 비즈니스, 문화 시설을 한 도시 공간에 통합하겠다는 하펜시티의 축소판이다. 처음부터 콘서트홀 건립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곳'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지 토론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문화'였다.



오페라의 역사 IV

글 | 송중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이탈리아 오페라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각 국 고유의 공연형태와 접목하여 각각의 특성을 지닌 오페라 장르(예. 프랑스 ‘오페라 코미크’, 독일 ‘징슈필’)를 탄생시켰으며, 이들은 전통적인 이탈리아 오페라와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독일 오페라의 발전과정을 알아보자.

독일 오페라의 전신은 종교적인 내용의 ‘교육용 연극’이다. 이런 전통에서 발전하여 만들어진 독일 최초의 오페라는 하인리히 쉴츠의 〈다프네〉이다. 이탈리아 오페라를 본보기로 삼은 이 오페라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후 독일 최초의 오페라 전용극장이 함부르크에 축조되어 개관기념으로 요한 타일레의 〈아담과 이브〉를 공연되었다. 카이저는 100여개의 오페라를 남긴 인물인데, 그중 〈크뢰수스〉와 〈율리시즈〉가 대표작품이다. 카이저는 가사의 억양과 음악의 일치에 관심을 기울였고, 합주로 피날레를 아름답게 장식한 작품을 만들었다.

독일에서도 요한 마테존이 〈보리스 고두노프〉를 발표하였고, 이어 텔레만이 등장한다. 그는 〈아텔라이트〉, 〈옴팔레〉, 〈뎀피노네〉, 〈오르페우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었다. 텔레만은 이탈리아 오페라가 독일 전역을 휘



어잡았을 때도 자기식의 오페라 작곡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독일 민중극에 뿌리를 둔 희가극인 ‘징슈필’ 발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텔레만을 독일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 징슈필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작곡가는 J.A. 힐러이다. 원래 징슈필은 교육목적으로 공연한 연극양식을 발전시킨 것으로 연극 중간에 노래를 삽입한 형태였으며, 초기에는 궁정보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렸으나, 징슈필의 대가인 모차르트에 와서는 궁정과 상류층 관객들을 위해 전문성악가들이 공연하는 본격적인 오페라로 변모하게 된다.

독일징슈필의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유럽 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이탈리아 바로크 오페라는 문학적 요소는 경시되고 인기에 영합하여 성악적인 기교와 화려한 무대에만 치우치는 경향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에 오스트리아 작곡가 글루크가 오페라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지나친 장식과 기교로 인해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오페라에 예술적 생명력을 다시금 부여하고자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작곡했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형식면의 개혁 뿐 아니라 오페라 내용에 있어서도 향후 독일의 오페라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The history of the Opera



글루크의 오페라 개혁정신을 충실히 계승하고 실현한 이가 모차르트이다. 모차르트 시대는 프랑스대혁명, 미국 독립과 같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태동한 계몽사상과 프랑스 대혁명기의 자유주의 사상은 오페라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제 오페라의 소재가 신화나 영웅들의 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의 인간 삶에 깃든 희로애락과 사회비판을 담게 된다. 모차르트는 각기 다른 장르의 오페라에서 - 오페라부파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세리아 <이도메네오>, 징슈필 <마술피리>, <후궁탈출>, 드라마 지오키프 <돈조반니> - 모두 훌륭한 작품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마술피리>와 같은 징슈필의 결정적인 작품의 탄생으로 독일 작곡가들은 징슈필이 자기 것이라는 애착을 갖게 되어 징슈필 형식을 지닌 베버의 <마탄의 사수>, 베토벤의 <피델리오> 등이 탄생한다. 이런 음악전통은 결국 바그너에게 영향을 끼쳐 가장 독일적인 전통을 지닌 바그너오페라 탄생의 밑거름이 된다. 12세 때 첫 오페라를 작곡하기 시작한 C.M. 베버는 1821년에 독일 징슈필의 최정상 작품인 <마탄의 사수>를 발표하게 된다. 이 작품이 초연되었을 때 '진정한 독일 국민오페라의 탄생'이라는 평을 받았다. 베버 이후 독일 오페라는 프리드리히 폰 플로토의 <마르타>, 알베르트 로르칭의 <러시아 황제와 목수>, 오토 니콜라이의 <원저의 명량한 아낙네들>, 슈만의 <게노페파> 정도가 있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오페라에 음악극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장차 오페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작곡가로 평가받는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탄호이저>, <로엔그린>까지는 낭만적 오페라라고 불렸지만,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후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링 사이클>, <파르지팔>은 음악극이라 명명했다. 바그너에게 있어 오페라는 종교이며 신앙이었으며 오페라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작품 전체가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오페라라는 용어 대신 '음악극'이라고 하였다. '음악극'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기본인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구분을 없앤 무한선율과 라이트모티프 등을 도입, 발전시켜 극과 음악의 일치를 이루어 낸다. 내용 면에서도 베버의 영향을 받은 첫 오페라 <요정>부터 모든 요소를 찬란하게 승화시킨 영광의 마지막 작품인 <파르지팔>까지 사랑을 통한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극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였다. 독일 오페라는 바그너에 이르러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놀라운 경지로 승화되었다. 이어 바그너를 계승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응축된 언어로 심리학적 통찰을 지닌 대사를 구사하면서 인간의 콤플렉스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반음계의 색채가 짙으면서 독특한 관능미를 지닌 그의 오페라는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이단과 같은 작품으로 <장미의 기사>, <살로메>, <일렉트라> 등이 있다. 독일 후기낭만파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작곡가로서의 공적은 부인할 수 없다.



펠릭스 발로통의

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



펠릭스 발로통(Félix Vallotton), <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Coin de parc avec enfant jouant au ballon), 1899. 캔버스에 유채, 61x48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여름날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상의 한 순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의 놀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대적인 현상 중 하나라는 점은 매우 놀랍다. 우리나라에 1920년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존중해 부르는 말이 없던 것처럼, 서양에서도 중세까지만 해도 아이는 덩치만 작은 어른, 기술을 빨리 가르쳐 노동력을 활용해야 할 미래의 일꾼으로만 여겨졌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옷이나 음식이 따로 있지 않고 어른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책이나 놀이도 따로 있지 않았다.

브뤼헬 1세의 <아이들의 놀이>는 16세기 플랑드르 지방 놀이 80여 가지를 백과사전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형놀이나 말뚝 박기, 그네타기, 소꿉놀이, 술래잡기 등도 있지만, 결투나 미사, 무도처럼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놀이의 유래를 추적해보면 귀족들의 놀이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평민 어른들의 놀이가 되었다가 다시 아이들의 놀이가 되었다고 한다.

17세기에 들어서야 영유아-청소년-성인의 구분이 생겨, 성인과 다른 존재로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고, 따라서 유년기의 중요성이 여러 면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놀이를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주제로 하는 그림도 종종 그려졌는데, 18세기 프랑스 화가 샤르댕이 그린 땀이 돌리거나 비눗방울 불기, 카드로 집짓기 등의 순식간에 끝나는 놀이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버리는 유년기에 대한 애잔함을 투영한다.

19세기 말의 화가인 발로통도 공원이나 정원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유년시절을 표현하고 있다. 스위스 로잔에서 태어난 펠릭스 발로통은 17살 때 미술을 공부하러 파리로 갔다. 그는 나비파(the Nabis)의 일원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그림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거부하고, 작가의 해석에 따른 형태나 색채를 추구했다. 나비파에서 '나비'는 '예언자'라는 헤브라이어에서 따온 명칭으로, 시인 카자리스가 붙였다고 한다. 나비파의 일원인 보나르와 뤼아르는 공원이나 정원 풍경을 즐겨 그렸고, 이들과 교류하며 발로통도 영향을 받았다. 발로통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의 하나인 <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도 공원에서 가지고 놀던 공을 따라 뛰어가는 아이를 위에서 내려다 본 구도로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에 묘사된 장소는 화가가 작성한 '가족일기'에 적혀있듯 후원자 타데(Thadée Natanson)와 미샤(Misia Godebska)의 시골 별장이 있는 빌뇌브 쉬르 욘(Vil-neuve sur Yonne)의 르레(Relais) 공원이다. 흰 옷을 입고 붉은 리본으로 장식을 한 노란 밀짚모자를 쓴 한 아이가 붉은색 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화면 뒤쪽에 있는 흰색과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두 여인은 작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상당히 먼 곳에 아이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단순한 주제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림의 구성이다. 우리는 이 아이를 아주 높고 또 멀리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정원을 향해 있는 저택의 창문에서 보는 듯하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

점은 당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일본 판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림의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의 상단으로 이어지는 단순하면서도 과감한 길게 뻗은 원호가 그림의 구성을 결정한다. 이 선을 경계로 그림자 진 풀밭과 햇빛이 비치는 모래밭이 나누어지고, 이는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세계와 풀밭 위 어른들의 세계를 구분하고, 다시 아이가 뛰어 다니는 동적 세계와 그렇지 않은 정적 세계를 나눈다.

공을 쫓아 뛰어가는 아이를 비추는 햇빛과 그림자는 여름날 아침나절의 빛을 느끼게 해주고, 펄럭대는 아이의 하얀 옷자락과 머리채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나타낸다. 일본 판화에서처럼 평평한 색과 단단한 윤곽선, 단순한 세부는 그가 이전에 즐겨 제작한 판화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는 나비파의 전형적인 기법이기도 하다.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무 그림자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황토색 풍선도 팽개치고 공을 잡으러 가는 아이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발로통은 유년기의 놀이라는 주제와 이에 대한 화가의 친밀한 감정을 어떠한 걸꾸임도 없는 명쾌한 양식으로 새롭게 표현하였다.

글 |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브뤼헬 1세(Pieter Bruegel the Elder),
<아이들의 놀이(Children's Games)>, 1560.
목판에 유채, 116×161cm.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샤르댕(Jean-Baptiste Simeon Chardin),
<카드로 만든 성(Le château de cartes)>,
1736-7. 캔버스에 유채, 60.3×71.8cm.
런던 내셔널갤러리.



우타가와 히로시게(Utagawa Hiroshige),
<일본삼경(日本三景) 중 아마노하시다테
(天の橋立)>, 1852-1858.
목판화, 브루클린 미술관.

행성

구스타프 홀스트의

The Planets Op.32

글 | 김수연

전)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현) 라디오 시사 투데이, KBS TV 이슈와 사람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상 과학은 난해하기도 하지만 재밌는 장르이다. 미래에 대한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 예를 들어 영화 ‘터미네이터’ 에서처럼 먼 미래의 인간들이 로봇과 싸운다든가 영화 ‘에이리언’ 에서처럼 우주선을 타고 괴물과 싸운다는 등의 스토리는 황당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최소한 지금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지만 정말 수십 년 후, 혹은 수백 년 후에 이런 공상 과학영화에서 그렸던 모습들을 현실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건 나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공상 과학 영화는 <스타워즈> 시리즈다. 조지 루카스가 보여준 방대한 은하계의 스케일에 반했고 요다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외계인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었다. 그리고 레이저가 나오는 광선검에 신기해하며 영화 속 캐릭터 미니어처도 모으고 참 열성적이었던 거 같다. 원래 한 번 본 영화 두 번 잘 안보는 편인데 6편에 달하는 <스타워즈> 시리즈는 예외였고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감탄했다. 그리고 영화 음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영화가 처음 나온 게 1977년이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5년 전 은하계를 배경으로 상상력을 구현해낸 것도 놀랍지만 그 은하계의 모습에 덧입힌 웅장하고 파워풀한 분위기의 영화 음악에 반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홀스트에게도 주목받는 몇몇 다른 작품들이 있었다. 하지만 홀스트하면 역시 모음곡 ‘행성’ 이라 할 정도로 홀스트는 이 작품 하나로 20세기에 활동한

“

사실 <스타워즈>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곡은 영국의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1874~1934)의 모음곡 ‘행성’ 중 ‘화성, 전쟁의 신’ 이란 부제가 달린 곡이다. 영화음악가 존 윌리엄스의 리메이크로 <스타워즈> 속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있지만 원곡이 클래식이란 걸 알고 들으면 1900년대 초에 이렇게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곡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탄스러울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홀스트는 이 모음곡이 너무나 유명해 오히려 싫어했다고 한다.

”

작곡가 중 가장 멋진 관현악 작법을 보여준 작곡가로 꼽히게 됐다. 홀스트는 60살까지 살았지만 그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허약체질이었다. 지독한 근시에, 천식 그리고 펜을 제대로 들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신경염이 있어 평생 홀스트를 괴롭혔는데 이런 홀스트가 '행성'이라는 힘차고 웅장한 작품을 남긴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허약한 신체조건 덕분에 오히려 상상의 나라를 떠나는 공상파로 성장할 수 있었고 결국 '행성'이라는 기념비적인 명작을 내놓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홀스트의 모음곡 '행성'은 오케스트라 대곡으로 모두 7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첫 곡은 '화성'을 그린 것으로 앞서 얘기 했듯 영화 '스타워즈'에 나왔던 힘찬 행진곡이다. 폭발적이면서도 우주의 장쾌한 모습이 힘차게 표현돼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우주의 대명사 같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인식돼 있다. 그리고 2곡은 '금성'으로 평화의 별, 3곡은 '수성'으로 날개 달린 메신저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곡을 꼽으려면 4곡 '목성'인데 환희의 별이란 부제가 달린 곡이다. 영국의 민요풍의 주제가 흘러 홀스트가 자신의 가곡으로 소개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뉴스의 시그널 곡으로 쓰여 친숙하다. 그리고 5곡은 '토성', 6곡은 '천왕성, 7곡 '해왕성'으로 각각 지난 세월의 별, 마술사, 신비 등의 부제로 연주되고 있는데 1918년 런던 심포니에 의해 초연한 이후로 청중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인기를 얻어갔다.

그리고 이 작품에 지구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홀스트가 이 작품을 내놓을 1913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홀스트는 당시 점성술에 관심을 갖고 있었

다고 하는데 '행성'의 작곡 시점이 1914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작품 '행성'은 점성술에 대한 그의 관심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제외된 것이고 만약 천문학에 의거해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면 수, 금, 지, 화, 목, 토, 해의 순서였을 테지만 이 작품의 순서를 보면 점성술에 의거한 작품이라 화, 금, 수, 목, 토, 천, 해의 순서로 돼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명왕성에 대한 얘기다. 1930년에 가서야 발견된 명왕성은 홀스트가 작곡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에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물론 홀스트도 죽기 4년 전 명왕성의 존재를 알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점성술을 신봉하고 가끔 점도 쳤다는 홀스트에게 명왕성의 미래가 보였던 것일까. 명왕성은 2006년 국제 천문 연맹에 의해 행성에서 외행성으로 분류됐다. 그러면서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됐고 홀스트의 '행성'은 다시 지구를 제외한 모든 태양계의 행성을 다루는 곡으로 자리하고 있다.

음악사에 가장 독창적인, 태양계의 행성을 담은 홀스트의 모음곡 '행성'. 아마 7곡 전곡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부러 찾아 듣지 않는 한, 귀에 익숙하고 잘 알려진 '화성'과 '목성'을 제외하고는 접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다. 하지만 홀스트의 모음곡 '행성'을 모두 듣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영화<스타워즈>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면 존 윌리엄스가 100여 년 전 나온 이 음악에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우주로의 멋진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울산시립교향악단 미국/캐나다 투어 공연

포틀랜드 II 밴쿠버



모두가 하나 되었던
진. 한. 감. 동. 의. 선. 울.

공연시작 1시간 30분전, 공연장 외곽을 찍기 위해 밖으로 나온 나에게 비친 광경은 내 눈을 의심케 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주하게 일렬로 선 기나긴 줄, 포틀랜드 '알린슈나이처 홀'은 정문과 옆문 두 곳으로 입장이 가능한 공연장이었다. 정문에서 왼쪽 모퉁이를 돌아 옆문까지 약 40~50미터의 긴 행렬은 순간 눈물이 날 정도였다. 또한, 지금 펼쳐진 이 광경 속에서 속속들이 모여드는 사람들도 보였다.

공연시작 30분전, 포틀랜드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체인 로얄 로자리안 단체였다. 흰색 슈트와 모자를 쓴 사람들은 입구에서 관람객의 입장을 돕기도 했고, 로비의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연주만 성공적으로 하면 되는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지역방송사의 방송 차량도 도착했다. 본격적인 취재와 함께 공연 시간은 임박했다. 이미 객석은 꽉 찬 상태, 포틀랜드 시장님과 박맹우 시장님의 모습도 보였다. 머나먼 미국까지 시립교향악단 연주만 보시기 위해 한걸음에 날아오신 시장님은 단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대 뒤까지 손수 방문하시기도 했다. 미국에서 시장님의 격려를 듣다보니 한결 힘이 나는 듯 잠시 긴장을 풀고 환한 웃음으로 답하는 단원들.

양쪽 시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울산광역시 홍보영상이 상영된 후 김홍재 지휘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정적, 바이올린의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아리랑,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울림, 코다로 이어지는 클라이막스 그리고 이어질 듯 여운을 남기

는 피날레까지 완벽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어지는 베토벤의 '황제'는 악장 중간 중간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래 악장 간 박수는 치지 않는 것이 예절이지만, 최고의 연주라 생각이 되면 관객들은 박수를 치곤 한다. 이곳 포틀랜드에도 시립교향악단이 있지만 한번도 악장 중간에 박수를 친 적이 없다고 한다. 극장관계자도 당황 했는지 나에게 속삭였다. 관객들이 예절을 몰라서 박수 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오해하지는 말아달라고. 기분 좋은 일이다.

이후 이어진 휴식, 로비에선 온통 오늘 공연에 대한 감동과 곡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카페테리아의 음료와 쿠키가 동이 날 정도였다. 이곳에 일하는 한 점원은 '어메이징합니다. 보통 휴식시간에 많이들 집에 가시는데, 오늘은 거의 안가시네요, 음악이 좋은가 봐요. 판단 미스입니다. 음료와 쿠키를 더 준비 할걸 그랬네요.' 휴식 이후, 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가 끝났다. 역시 기립박수! 여기저기서 휘파람 소리까지 대단했다.

모습에선 이미 세계속의 울산시향 그 모습이였다. 연방의원인 '연아마틴'의 축하 속에 진행된 캐나다 연주는 말 그대로 교민들을 위한 공연이었다. 남녀노소 이곳 밴쿠버에 살고 있는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주 관객이었으며, 간간히 외국인의 모습도 보였다. 천9백여 명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시작된 연주, 포틀랜드처럼 클래식 전용홀이 아닌지라 음향의 울림은 약간 적은 듯 했다. 하지만, 음악은 소리의 크기로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을 듣는 관객의 마음, 그리고 음악을 전달하는 단원들과 지휘자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감동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번 북미 순회연주에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은 짧은 일정에 긴 감동을 심어주었다. 연주기량의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악보에 적힌대로, 지휘자의 지휘봉대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음만을 표현하는 무미건조한 연주는 절대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 매년 베토벤, 모차



김홍재 지휘자는 연신 허리 숙여 답례를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리고 올려 퍼진 앵콜곡 '임진강', '도라지' 두 곡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향생각에 사무친 교민과 심금을 울리는 선율에 동화된 미국인까지 더불어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걸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틀 후 캐나다 밴쿠버의 '퀸 엘리자베스' 극장은 포틀랜드와는 달리 현대식의 극장이었다. 주로 오페라나 뮤지컬을 전용으로 하는 홀이지만 이미 포틀랜드에서의 감동을 경험한 지라 한결, 여유롭고 자신 있는 단원들의

르트의 대작들이 같은 악보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없이 연주되지만 느낌과 감동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덥고 짜증나는 여름밤, 에어컨보다도 시원하고, 팔빙수보다도 소름 돋는 클래식의 감동을 즐겨 보시는 건 어떠실지?

글 | 권혁민(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아트프렌드 기자)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포토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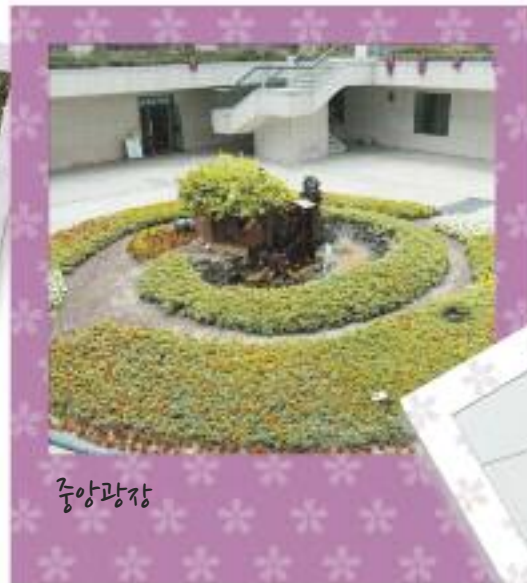
대공연장 앞 토디어리

최근 예술회관 이것저곳에서 행복해 보이는 커플의 웨딩촬영
또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디서 찍으면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풍성한 신록이 우거진 곳,
멋진 조형물이 전시된 곳, 알록달록 꽃잔치가 한창인 곳 등...
예술회관 숨은 포토존 찾기, 함께 떠나볼까요??

글 | 김내영(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아트프렌드 기자)



예술의 숲



중앙광장

Photo Point



대공연장 옆길



야외공연장 가는 길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가족뮤지컬 “사과가 쿵!”

일 시 | 9. 1(토) 14:00 16:00
9. 2(일) 13:00 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원

주 최 | 플러스기획

■ 공연개요

유아 및 어린이의 연령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단순한 구성으로 쉽고 재미있게 엮은 뮤지컬

■ 프로그램

커다란 사과가 쿵 떨어지자 애벌레부터 코끼리까지 차례로 등장해 열심히 사과를 갉아 먹는다. 각각의 동물들은 다른 소리를 내며 사과를 갉아먹고는 다음 동물들을 위해 자리를 슬쩍 피해준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동물들은 모두 사과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한다. 동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과를 먹을까?



제30회 내풀로 정기공연

일 시 | 9. 1(토) 17:0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내풀로

■ 공연개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2012 김미자의 춤 “이척선생 추모공연”

일 시 | 9. 2(일)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김미자 무용단

■ 공연개요

이척 선생의 작품인 이척류 산조, 살풀이춤, 수련애화 등 공연

■ 프로그램

- 살풀이 춤
- 이척류 산조
- 청풍명월, 태평무
- 지전춤, 한량무
- 수련애화



창작마당극 “으랏차 차~달구”

일 시 | 9. 5(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마당극단 결

■ 공연개요

살아있는 우리들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탄생시켜 창작마당극으로 제작

■ 프로그램

- 1마당 : 아유회(달구와 말희의 만남)
- 2마당 : 달구와 직장 동료들
- 3마당 : 봄 여름 가을 겨울(달구의 가족, 달구와 옹화)
- 4마당 : 달구의 독백
- 5마당 : 옹이의 결혼식



2012 울산MBC특별기획 창작오페라 “박상진”

일 시 | 9. 7(금) 19:30 / 9. 8(토)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문화방송(주)

■ 공연개요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조국 독립의 염원으로 목숨까지 초개처럼 버린 위대한 민족혼과 조국애를 감동의 그랜드 오페라로 재현

■ 프로그램

- 상덕태상회 대한광복군
- 죽음을 각오했던 어머니 문상
- 의로운 길을 위한 판사를 포기
- 아내를 향한 애절한 사랑
- 스승 허위의 3년 복상
- 마지막 순간까지 생사를 함께한 동지들



제1회 황동운 대금 독주회

일 시 | 9. 9(일)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황동운

■ 공연개요

울산출신 젊은 국악인의 첫 번째 독주회로 대금 및 다양한 국악연주로 지역 국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프로그램

- 남도 굿거리
- 영산회상 중 상경산 풀이
- 25현 가야금을 위한 강마을
- 대풍류 합주
- 김동진류 대금산조
- 시나위합주, 청성 자진합입



제1회 울산태화강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9. 11(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태화강합창단

■ 공연개요

실버세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적극적 사회봉사 참여를 목표로 창단된 울산 태화강합창단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보리밭, 남촌, 산촌 등 우리가곡
- 태화강, 동백섬, 사랑합니다 등 울산의 노래
- 7080메들리 등



2012 창작국악관현악 “대바람소리V”

일 시 | 9. 12(수)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처용국악관현악단

■ 공연개요

울산 시민들의 예술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한 연주

■ 프로그램

- 창작 국악관현악
- 관현악과 소리의 만남
- 관현악 협연
- 관현악과 사물의 만남



제4회 울산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9. 12(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타악기 앙상블

■ 공연개요

타악 앙상블 공연을 통해 클래식 저변확대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프로그램

- Drum experience
- Hungarian Darce suite
- Tambourin paraphrase for 2 Marimba
- Portico
- Sabre Darce 외 4곡

Arts Friend

공연·전시가이드



동리목월을 찾는 문학과 음악회

일 시 | 9. 14(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사)동리목월 기념사업회

■ 공연개요

한국문단의 거봉이신 김동리 선생과 국민시인 박목월 선생의 선양사업과 뜻을 기리는 문화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정신을 드높이고자 함

■ 프로그램

- 시 낭송
- 소프라노(김희선)
- 박동규 문학이야기
- 테너(이동환)
- 김주영 문학이야기 등 다수



2012 울산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비전”

일 시 | 9. 15(토) 17:0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

■ 공연개요

울산지역 청소년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연을 통해 보람 있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



제15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일 시 | 9. 15(토) 10:00 / 9. 16(일) 1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전통음악의 보급 및 발전, 국악인에게 영예로운 등용의 기회 제공

■ 프로그램

기악, 가창, 한국무용, 풍물 등 경연



제6회 국악연주단 민들레 정기연주회 “동락6”

일 시 | 9. 16(일) 17: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국악연주단 민들레

■ 공연개요

퓨전 국악 실내악곡을 개발하여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프로그램

- 광야의 숨결(퓨전 국악 실내악)
- 모닝(소품곡)
- 나는 밤나무(중주곡)
- 박타령(국악가요)
- 썩대머리(퓨전 판소리)
- 정열(퓨전 관현악), 타(타악·퓨전 관현악)



제15회 울산광역시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일 시 | 9. 18(화)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광역시 국악관현악단

■ 공연개요

현대 감각에 잘 맞는 창작 국악 관현악곡과 창작 국악가요를 연주

■ 프로그램

- 방황, 멋으로 사는 세상
- 해처럼 달처럼, 의좋은 형제, 태화강
- 월광, 슬도, 아름다운 동해 울산, 울산찬가
- 축제, 동해나 울산은



제23회 울산교사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일 시 | 9. 19(수)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광역시 교사국악관현악단

■ 공연개요

전통의 계승과 현대작 감각에 맞춘 창작 국악 관현악곡과 창작 국악가요를 연주

■ 프로그램

- 수연장지곡과 정재(정악)
- 다름과 같음(난타)
- 강마울(대금, 가야금 합주)
- 우리가 닮아야 할 바다, 노래 나라에서 잠깨면(국악동요)
- 동백꽃, 유월모란(국악가요)
- 동해바다, 모듬북 협주곡(국악관현악)



제11회 파래소 정기연주회

일 시 | 9. 19(수)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주 최 | 파래소 국악실내악단

■ 공연개요

전통음악의 새로운 해석으로 신선하고 젊은 국악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시민들에게 사람의 여유와 행복을 주고자 함

■ 프로그램

- 대풍류 반주와 승무
- 판소리 • 설장구
- 시나위합주와 살풀이 춤
- 옹헤야, 썩대머리, 길놀이, 놀이터, 난감하네(창작 국악)



제4회 글리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9. 20(목) 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글리앙상블

■ 공연개요

르네상스 시대 영국, 이탈리아 합창 음악의 거장들이 작곡한 모테트&마드리갈을 아카펠라로 연주하며, 고향의 정서를 그린 한국가곡과 경쾌한 리듬의 세계민요를 여성합창으로 연주

■ 프로그램

- If you love me, Exultate Deo, Sing we and chant it
- My bonny lass she smileth, Il bell' umore
- 산유화, 마을, 가고파, 고향의 봄
- 평화로운 세상, 고산청, 잠보(세계민요)
- Singin' in the Rain 등 다수



제3회 태화강 가요제

일 시 | 9. 21(금)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사)가수협회 울산지회

■ 공연개요

울산의 노래와 울산의 소재로 한 가사를 찾아 자랑스런 울산의 가수들을 추억하며 고향 울산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울산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3회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울산지부 정기공연

일 시 | 9. 22(토)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울산지부

■ 공연개요

팔도 각 지방의 민요를 설명과 함께 직접 듣고
느낌으로써 우리 지방의 특색과 멋을 전달

■ 프로그램

- 1막 : 민요에 대하여
- 2막 : 경기도 소리
- 3막 : 강원도 소리
- 4막 : 경상도 소리
- 5막 : 전라도 소리



기다림...ing

일 시 | 9. 23(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원

주 최 | 박선영 무용단

■ 공연개요

- 울산의 문화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울산의 문
화유산을 무용적 입장에서 창작작품으로 이끌어 냄
- 울산을 대표하는 인물인 박제상 설화와 관련된
치슬령과 망부석을 모티브로 한 작품

■ 프로그램

- 복의 합주(삼고무와 외복의 공연)
- 쟁강춤(군무)
- 기다림...ing



제9회 영음 정기연주회

일 시 | 9. 25(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천마성악회

■ 공연개요

천마성악회의 아홉 번째 정기공연으로 오페라 주요
아리아와 중창을 발췌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
가갈 수 있도록 연주

■ 프로그램

- 오페라 리골레토 중 "Questa O Quella", "Tutte
le feste"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Cortigiani", "Parigio
cara"
- 오페라 아이다 중 "Gloria all Egitto" 외 다수



110만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세상 “아가야 걸러라”

일 시 | 9. 26(수)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주)울산저널

■ 공연개요

희망을 향한 어울림-열린시민문화마당으로 울산시
민을 초청하여 함께 소통하는 열린 지역문화제

■ 프로그램

- 대동풍물굿
- 프롤로그 영상상영
- 페다스쿨 합창단
- 하모니카 앙상블공연
- 우창수와 개똥이 합창단
- 정대춘, 박은옥 공연



제9회 아이노스 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9. 26(수) 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아이노스 합창단

■ 공연개요

아이노스 합창단의 아홉 번째 정기연주회로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진행

■ 프로그램

- 오, 어머니님 당신도 그것을 아시지요
- 오, 사랑스런 백합
- 말이어 달려라
- 모두 안녕하시오 외 다수



제13회 울산사랑 환경콘서트

일 시 | 9. 27(목)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매일신문사

■ 공연개요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녹색도시 울산’을 조성
하기 위해 울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산업 발전
과 삶의 질 개선이 동시에 충족되는 친환경 산업수
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울산시민의 환경의식 제고
와 화합의 장 마련

■ 프로그램

- I Found a new baby
- Softly
- Mack the Knife
- Volare 등 다수

EXHIBITION



제11회 한마음 야외 조각전

기 간 | 7. 21(토)~9. 17(월), 59일간

장 소 | 야외전시장

주 최 | 울산남구문화원

■ 전시내용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제11회 한마음 미술 공모전의
야외 조각분야 입상작품 8점 전시



울산 국제사진 페스티벌

기 간 | 8. 30(목)~9. 6(목), 8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매일신문사

■ 전시내용

사진, 사람, 생활, 환경, 어울림을 테마로 한 50명의 국내작가와 외국작가
10명의 사진작품 250점 전시



울산예총 중견작가전

기 간 | 9. 7(금)~9. 11(화), 5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울산예총연합회

■ 전시내용

울산 건축가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회원들 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견작가들의 작품 70점 전시



제33회 울산여류작가회 회원전

기 간 | 9. 7(금)~9. 11(화), 5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울산여류작가회

■ 전시내용

1987년 창립한 울산지역 순수미술 전공 여성 미술인들의 모임인 울산여
류작가회의 서른 세번째 정기전으로, 섬세한 표현력과 다양한 상상력으
로 우리 삶의 미래모습을 보여주는 미술작품 26점 전시

Arts Friend

공연·전시가이드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4회 신미꽃중앙회 회원전

기 간 | 9. 7(금)~9. 11(화), 5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신미꽃중앙회

■ 전시내용

동양 꽃꽃이와 서양 꽃꽃이의 만남을 주제로 한 꽃꽃이 작품 30점 전시



사진가 권일 개인전

기 간 | 9. 7(금)~9. 11(화), 5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권일

■ 전시내용

사진가 권일의 열한 번째 개인전으로, 쓰레기를 오브제로 한 사진작품 40점 전시



제11회 한마음 미술대전

기 간 | 9. 12(수)~9. 17(월), 6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남구문화원

■ 전시내용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한마음 미술공모전의 입상작품 250점 전시



제30회 초동미전

기 간 | 9. 18(화)~9. 23(일),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초동미술회

■ 전시내용

꿈과 아름다움을 심어 정서교육에 힘쓰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초동미술회의 제30회 정기전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한국화, 양화 등 27명 회원의 미술작품 40점 전시



제23회 SK사진동호회 회원전

기 간 | 9. 18(화)~9. 23(일),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SK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2011~2012년 동안 회원들의 포트폴리오 순수 사진작품과 대시민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사진작품 40여점 전시



제2회 이영주 개인전

기 간 | 9. 18(화)~9. 23(일),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이영주

■ 전시내용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면서 계획한 전시회로,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을 혼합재료와 채색화로 표현한 한국화작품 25점 전시



울산현대 회화작가회 전국교류전

기 간 | 9. 18(화)~9. 23(일),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울산현대회화작가회

■ 전시내용

전국 현대미술 작가와 우리 지역 작가와의 미술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세계를 교환·논의하고자 하며 전국 교류전을 통한 공존과 소통의 미술작품 60점 전시



제2회 오상익 개인전

기 간 | 9. 24(월)~9. 28(금), 5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오상익

■ 전시내용

퇴임을 맞아 퇴직기념전으로 마련하여 울산시민과 동료 직원에게 선보이는 전시로, 울산의 자연풍경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 40점 전시



정기홍 조각 소품전

기 간 | 9. 24(월)~9. 28(금), 5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정기홍

■ 전시내용

자연으로부터 연작시리즈 소품조각 전시로, 브론즈, 대리석,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재료의 소품조각 작품 30점 전시



제2회 울산장애인 미술협회전

기 간 | 9. 24(월)~9. 28(금), 5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울산장애인미술협회

■ 전시내용

울산장애인미술협회의 두 번째 전시회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미술가의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그 동안 창작활동을 통해 완성해낸 유화, 민화, 공예 등 미술작품 30점 전시



제5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기 간 | 9. 24(월)~9. 28(금), 5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포토라이프클럽

■ 전시내용

포토라이프클럽의 다섯 번째 정기회원전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통한 회원들의 실험적이면서 창작적인 작품을 위주로 하여 울산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순수창작, 기록사진, 응용창작 사진작품 60점 전시

2013년 상반기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신청

대관시설 현황

• 공연장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면 적	객석수	면 적	객석수	면 적	객석수
1,570㎡	1,484석	380㎡	472석	112㎡	650석

– 사용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전시장

실 내 전 시 장				야외전시장 (예술의 숲)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제3전시장	제4전시장	
432㎡	270㎡	252㎡	280㎡	517㎡

대관기간 2013. 1. 1 ~ 6. 30 (6개월간)

-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전시, 예술단 공연 및 대·소공연장 점검일은 대관 불가
- 제1전시장은 7일 대관, 6일 전시를 원칙으로 함

접수기간 2012. 9. 17(월) 09:00 ~ 9. 21(금) 18:00 (5일간)

접 수 처 울산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과

※ 2012년 9월 17일은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접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접수는 9. 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사용허가 신청서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대관안내/대관신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연 또는 전시계획서 1부
- 공연 또는 전시자의 경력서 1부
- 출연자 및 진행요원 명단 1부
- 대관준수사항 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전시작품 목록(전시인 경우)
- 공연 또는 전시 프로그램(프로그램은 사용 5일전까지 제출 가능)

문 의 처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 공연 : ☎(052)226-8232, 전시 : ☎(052)226-8253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